

光州日뢖



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158호 1판 (음력 11월 24일)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광주 인공지능 산업 날개 달았다

국토부, 집적단지 들어설 첨단 3지구 그린벨트 해제 결정 2025년까지 1조 투입…데이터센터 건립 등 AI 산업 선도

광주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중 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 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 해제 결정되면서 AI관련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 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변경 건을 심의해 해제를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진원·남면

이 포함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대상지는 361만6853여㎡로 이 가운데 85.6%인 309만5950㎡가 그린벨

광주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 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영 개발 방 식으로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를 조

광주시는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217억원을 투입해 AI 집적단지 조성 등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는 광주 인공지능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가 구축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슈퍼컴퓨터 구축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가 들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게 된다.

또한, 첨단 3지구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이외에도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의료용 생체소제 부품산업 대상지로 활용될 예정 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범정부 차원의 '인공 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선제적 으로 준비해온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은 정부 지원과 맞물려 더욱 빨 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 인공지능사업은 올해 1월 정 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첨단3지구 개발

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 서는 빛그린 산단과 에너지산업으로 특화 된 에너지밸리 산단, 인공지능 중심의 첨 단산단까지 광주 미래먹거리 3각축을 구 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첨단 3지구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가가 마련됐다"면서 "광 주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드 는데 적극 뒷받침하여 4차산업혁명의 새 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 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까 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 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경전선 전철화 확정 … 목포~부산 2시간 열차시대

정부 예타 재조사 통과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불리던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 다. 내년부터 3년 뒤에는 목포에서 부산까 지 6시간 넘게 걸렸던 데서 2시간여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광주일보 2019년 12월 19일자 1면〉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재정 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호남과 영남을 연 결하는 경전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재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

정성'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사업의 경우 경제성 대비 편익(B/C)은 '0.88', 종합평가(AHP) '0.653'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1을 넘지 못했 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 값을 추가해 분석한 종합평가(AHP)는 0.5를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가 지난 2014년 경전선 전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 이래 5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지난해 예타 조사 당시 B/C 0.85, AHP 0.489가 나오면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남도의 지역균형발 전 항목 등을 반영한 예타 재조사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KDI에 예타 재조사를 요구했고 이번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광주 송정역과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 전선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대표적 간선(幹線)철도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 시간이 넘게 걸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

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광주~순 천(122.7km) 구간은 시속 50~60km로 2시 간 27분이나 걸리는데도, 일제 강점기인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하지 않 고 그대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호남차별 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1조7700억원을 들여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면 3년 뒤인 2023년 말에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5시 간 30분 걸리던 운행 시간이 2시간 24분 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 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두 지역 동반성장,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산업 활 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통령과 경총회장 '파안대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투자 100조원 시대 연다"

확대경제장관회의 '2020 경제정책 방향'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 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한 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 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야 하는 때"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문 대통평은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 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 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 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 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의 경제정책 목 표를 '다수의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 는 해'로 잡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 용 부진 개선 등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 화를 이루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돌, AI 한돌에 호선으로 불계패 ▶2면

"리모델링 비용 350억 남구청 책임" ▶6면

5·18사적 적십자병원 광주시가 산다 ▶7면

이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 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일자 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 분부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 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며 대기업·중소기 업,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힘이 되도록 상 생 의지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 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 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포용은 포 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반드시 성공해 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여러분부터 신 념을 가져야 국민·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iu.co.k



